
한영희 선생님 20주기에 부쳐

임 학 중*

1. 첫 만남

한영희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1984년 6월 24일이다. 막 대학을 졸업한 나의 첫 근무지 국립진주박물관에서였다. 38세의 젊은 관장이어서 나를 놀라게 하였다. 관장으로 부임하신 직후 영남 지역의 각 학교 출신자 중에서 몇 명을 뽑으셨던 모양이다. 당시만 하여도 국립박물관의 연구원 채용은 각 학교로 나가 계시던 국립박물관 출신 선생님들에게 고고학이나 미술사를 공부하는 졸업생을 추천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같은 해 3월 총무처에서 뽑아 보낸 학예연구사로 부산대 출신의 김정완 선생이 미리 와 계셨다. 직제상 연구사 자리가 셋이어서 두 명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처음 추천된 사람이 경북대학교의 이상길 씨와 계명대학교 출신의 나였다. 이상길 씨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의 1회 졸업생이라 학교에 남기로 하겠다고 후에 들었다. 대신 오신 분이 영남대학교 출신의 권상열 선생으로 나보다 3주 뒤에 합류하였다. 셋은 각각 한 살 터울로 내가 막내였다. 역시 후에 안 일이지만 한영희 선생은 이런 일에는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시는 분이였다. 우리보다 조금 늦게 김득풍 학예연구실장이 오셨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개관 후 곧 박물관을 그 만두셨다. 서울대학교 후배인 관장을 모시면서 늘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였다. 그 해 11월 2일 개관 때까지 나와 권상열 선생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개관 후 나는 별정직으로, 권상열 선생은 기능직으로 발령을 받았다. 2년 후 우리 둘은 연구사 시험을 치고 학예연구사가 되었다. 그때는 박물관에서 별정직 혹은 기능직으로

* 전 국립김해박물관장

근무하던 분이 많았다. 김상면, 안병찬, 진화수, 조현중, 곽동석, 소재구, 김창화, 강대규, 최응천, 김종만 씨 등이다. 거기에 문화재연구소와 민속박물관에 근무하시던 몇 분과 함께 16명이 연구사 동기가 되었다. 우리 둘은 운이 좋아 2년 만에 시험을 칠 기회가 왔지만, 다른 분들은 5년 이상 기능직으로 고생하셨다고 들었다. 이후 진주박물관에서 5년 6개월 동안 관장으로, 1997년부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까지 3년 6개월 가까이 고고부장으로 모셨다. 국립박물관 생활에서 만난 나의 첫 Captain이며 돌아가실 때까지도 나의 Captain이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박물관 생활 중에서 가장 학은(學恩)을 많이 주신 분이기도 하다. 운명하신 지 20년이 되었지만 늘 그리운 분이다. 선생님과 나누었던 추억 중에서 발굴조사 현장과 보고서를 쓰면서 있었던 추억을 중심으로 몇 조각을 기록하여 그리움을 달래고자 한다.

2. 진주에서

진주박물관에서 선생님과 함께 한 발굴은 김해 양동리, 거창 말흘리, 합천 죽죽리와 반계제, 통영 연대도와 옥지도, 고성 울대리 유적 등이다. 김해 양동리 유적은 개관 후 첫 발굴이었다. 아직 예산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특유의 친화력으로 문화재연구소의 예산을 받아오셨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한 지붕 같은 식구였지만 연구소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큰일을 해내신 것이었고, 그 발굴을 하면서도 늘 인화를 강조하셨다. 연구소에서는 홍성빈 선생님이 실무를 봐주셨다. 이 발굴에서는 부산대와 경상대 출신의 여러분들이 현장에 자주 오셔서 도움을 주셨다. 신경철, 조영제, 안재호, 송계현, 손명조, 김정례 씨 등이다. 학계의 큰 화두였던 와질토기를 내는 유적으로, 소위 와질토기론의 근거지였던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다. 후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부임하셨던 이희준 선생도 그 현장의 조사원으로 되어 있었다. 와질토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삼불 김원용 선생도 현장을 방문하셨다. 권상열 선생과 나는 격주로 현장에 들어가고 김정완 선생이 상주하였다. 주말이면 김해읍으로 나가 목욕을 하고, 필요 물품을 산 다음 세겹살과 소주로 피로를 풀었다. 관장님은 약주가 약하셨지만 늘 술자리에 어울리셨다. 숙식은 마을 민가에서 하였는데, 저녁이면 토

론과 잡기 등으로 서로 정을 쌓았다. 당시 발굴 현장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

거창 말흘리 유적은 도로공사로 훼손된 고분의 수습 발굴로, 역시 부산대 출신의 김두철 씨가 현장에 상주하였다. 다음에 들어간 곳이 죽죽리 사지였는데, 반계제 고분과 함께 합천댐 수몰지구 발굴의 일환이었다. 전자는 개관 후 박물관 뜰에 놓을 석조물을 확보하는 차원이었고, 후자는 가야 박물관에 맞는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명분을 찾으셨다. 일마다 목적이 분명하여 경상남도 도청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우리를 배려한 것으로 보였는데, 도청 이광지 연구관의 도움이 컸다. 역시 관장의 설득과 친화력을 볼 수 있었다. 죽죽리 현장에서는 우리가 모두 이 지역의 고고학을 공부하는 인적 구성이어서, 사지와 건물지를 전공하시던 공주와 부여박물관의 이규산, 서오선 선생, 경주박물관에 근무하시던 이상구 씨 등을 부르시기도 하셨다. 발굴 종료 후 탑 부재와 전축 기단, 기타 석물 부재 등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 수몰 지구라 큰 차가 드나들기도 어려웠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다. 궁리 끝에 경운기 같은 것을 개조한 세 발 달린 작은 차로 그 무겁고 많은 석물을 옮기게 되었다. ‘딸딸이’로 불리는 것이었다. 합천에서 진주까지 2차선 국도 한 차선을 다 점유하였다. 돌이 너무 무거워 고장이 난 차도 있었다. 차량이 많지 않았던 때라 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나던 차량에 엄청난 폐를 주기도 하였다. 위험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모두 박물관으로 옮겨져 지금도 박물관 뜰에 복원되어 있다.

반계제 고분은 수몰지구 내에서 가장 좋은 가야 무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산세가 험하여 평판측량이 어려웠다. 이를 위하여 광주에서 신상효, 고고부에서 김덕현, 김정석 씨 등 측량과 실측에 능한 분들을 데리고 오셨다. 현장의 업무효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교유 폭을 넓혀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 유적은 ‘가’, ‘나’, ‘다’ 지구로 이름 붙여진 세 개의 능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각을 김정완, 권상열, 나의 순서로 한 능선씩 담당하였다. 나는 한도식 씨와 ‘다’ 지구를 조사하였다. 모두에게 개인 능력을 키워주시는 배려였다고 생각하였다.

개관 후 몇 차례의 발굴은 모두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발굴이었다. 후에는 당신의 전공인 신석기 유적을 조사하게 되었다. 1987년 전국을 휩쓴 태풍 ‘셀마’가 선물(?)을 주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우연히 배를 타고 연대도를 지나시던 동아대 심봉근 교수가 패총이 드러나 있다고 관장께 알려주셨다. 지역에 와 계시던 전공자였음이 주된 이유였겠지만, 평소 당신이 널리 교유하신 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듬해 초 주말을 이용하여 현장을 찾았다. 1988년 3월 말이었다. 대학과 국립박물관 후배

인 신중환 씨와 동행하였다. 1박 2일로 일정을 잡고 이참에 상노대도도 가보기로 하였다. 오후 2시 30분 여객선으로 연대도에 들어갔다. 태풍으로 드러난 해안선의 한쪽 단면에는 패각과 여러 층위가 노출되어 있었다. 현장을 본 우리는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토기와 이미 잘려버린 유구의 단면이 보였다. 심지어 유구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점의 석부(石斧)가 가지런히 박혀 있기도 하고, 주먹 크기의 흑요석 원석도 드러나 있었다. 유구임에 분명한 단면에는 여러 점의 완형 토기도 있었다. 주저되었지만 곧 여름 피서철이 되면 모두 훼손될 것이 뻔하여, 나름 축척을 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 모두 수습하였다. 두 사람의 배낭이 가득 찼다. 그런데 저 멀리서 뱃고동이 울린다. 아뿔싸! 충무로 돌아가는 마지막 배였는데, 현장에서 너무 흥분하여 놓친 것이다. 마을로 돌아와 알아보니 다행히 사선을 타고 충무로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왕 내일 아침에 다시 상노대도를 가기로 하였으므로 배편을 알아보고 숙소를 잡았다. 아직 학예연구사 시보였던 형편상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도 기분이 좋아 충무에서 가장 좋은 비치 호텔을 숙소로 잡았다. 둘이서 수습한 유물들을 다 씻어 방안 가득 깔아두고는 늦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 다음날 상노대도에서도 엄청난 양의 유물을 채집하였다. 이때 지표에서 채집한 석부 일괄과 완형(完形) 토기, 흑요석 원석은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실에 전시되어 있다. 이때 파악한 층위와 수습한 유물을 정리하여 관장과 함께 한국고고학보에 소개한 글이 ‘煙臺島 斷崖部Ⅱ’이다. 진주로 돌아와 마치 개신장군처럼 관장께 자랑하였다. 놀라시기는 관장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자체 발굴비를 들여 그해 가을 첫 발굴을 하게 되었다. 처음 지표 조사 할 때 발견한 단면이 훼손된 유구는 7호 무덤으로, 또 석부 일괄이 나온 곳은 5호 무덤으로 명명하였다. 모두 네 차례의 조사가 있었는데 첫 조사만 한 관장님이 진주에 계실 때 이루어졌다. 물론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당신은 늘 현장을 찾으셨고, 알뜰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무덤군이 처음 확인되었고, 이어서 조사한 옥지도 유적과 함께 신석기시대 적석 무덤의 양상을 알려 주었다.

이 현장에도 어김없이 많은 연구자와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방문하거나 조사원으로 참가하였다. 정정원 선생님과 협의하여 한국신석기연구회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한국신석기학회의 전신이다. 더 나아가 구주 조몬연구회와의 교류도 이 현장에서 첫 모임이 있었다. 이백규 선생님의 입담을 밤새 들은 곳이기도 하다. 조사의 차수는 다르지만, 부산대학교의 김두철, 김영민, 김양미, 박상희, 정현석, 동아대학교의 정성

희, 경상대학교의 류창환, 이경자, 계명대학교의 신중환, 김종오, 김규상, 최재현, 서울대학교의 임상택 등이 조사원으로 참가하였다. 사람 좋아하는 관장의 덕이었다.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다. 아내는 주말이면 진주에서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현장으로 들어왔다. 사천, 고성을 거쳐 다시 여객선을 타고 섬에 들어와야 하니 먼 길이었다. 다음 날 오후에는 다시 여객선을 타고 돌아가야 하는 힘든 일정인데도 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하였다. 어느 주말, 마침 광주박물관 지전길 관장을 모시고 지도위원회를 하는 날이었다. 저녁에 맛있는 회와 음식을 마련하라고 하셔서 전복죽을 하기로 하였다. 현장 바로 앞 바다에서 천연전복이 잡히는데, 모두 어촌계에서 경매를 위해 보내는 것이었다. 어촌계장을 만나 통사정을 하여 살 수 있었다. 당시 돈으로 kg 당 8만 원이나 하는 전복을 2kg이나 샀다. 아내와 숙소 할머니에게 전복죽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전복죽을 어떻게 끓이는지 모른다고 하였고, 새댁인 아내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섬에서는 전복을 회로 먹지 죽으로 만들 일이 아니고, 아내도 부산 사람이니 마찬가지였다. 어렵게 장모께 알아보고 죽을 쑂기는 하였다. 저녁상에 올라온 전복죽은 밥알보다 전복 살이 더 많았다. 모든 전복을 한꺼번에 다 넣은 것이다. 몇 마리만 넣어도 되는데 그 많은 전복을 다 넣었으니 오돌오돌 씹히는 전복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도 모두 즐거워하였다. 이튿날 아침 현장을 떠나는 지 관장께 지도위원 여비를 드렸는데, 그 봉투에 꼭 그만큼의 돈을 더 넣으셔서 돌려주신다. 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전복죽 잘 먹었다고 하셨다.

욕지도 패총의 조사는 지역 신문에 난 1단 기사가 계기였다. 공사 중 패총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1988년 여름이니 연대도를 발굴하기 직전이었다. 반나절 토요일 오후를 포함하여 3일밖에 되지 않는 여름 휴가를 가는 참이었는데, 관장은 휴가 중에 욕지도 현장을 다녀오라고 하신다.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휴가 마지막 날 충무항에서 아침 배표를 샀다. 공중전화로 욕지도로 간다고 보고하였다. 휴가 중 시간을 내라고 하여 미안하셨던지, 어제 김정완 선생이 갔다가 왔으니 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왕 휴가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냥 욕지도로 출발하였다. ‘L’자로 절개된 현장에서는 단면의 토층도 잘 보이고 주변에 엄청난 빗살무늬토기와 석기가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좋은 석기가 많았다. 더군다나 당시만 해도 드물던 흑요석 조각이 엄청났다. 신이 나서 토기와 석기를 한 배낭 가득 짊어지고 돌아왔다. 일요일이었지만 박물관으로 들어가 모두 씻었다. 자료실 큰 탁자에 신문지를 깔아 말려

두었다. 하숙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여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셨다.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즉시 행정절차를 하고 연대도 발굴을 마친 후 그해 겨울 발굴에 들어갔다. 부석층 아래에서 인골이 나왔다. 연대도와 마찬가지로 인골이 동반된 신석기시대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삼불 선생과 한병삼 관장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힘을 실어주셨다. 학사적으로 중요하고 부석층에서 하도 많은 유물이 나와 발굴이 지연되었다. 기간 내에 다 마칠 수가 없었다. 물론 현장 책임자였던 나의 능력 부족이었다. 순박하였는지 개념이 없었는지 대뜸 관장께 전화하여 2주간만 발굴을 더 하겠으니 발굴비를 더 확보하여 달라고 하였다. 귀청하라는 학예연구실장의 명을 어기고 무작정 현장에서 버텼다. 발굴비는 이미 바닥이 나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안희균 당시 학예연구실장이 현장으로 들어오셨다. 말없이 나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셨다. 발가벗고 들어서 욕탕에 들어가 앉았다. 특유의 웃음을 지으시면서 ‘발굴을 마치고 귀청하라는 데도 명을 어기니, 너는 공무원도 아냐’라고 하신다. 꾸중이기는 하였으나 현장 사람들을 정말로 배려해주시는 일이었다. 마지막 배로 진주로 떠나시면서 ‘좋은 관장 만난 것으로 알라’고 하신다.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건네셨다. 우선 급하게 발굴비를 구해오신 것이었다. 덕분에 이 유적의 조사는 잘 수습을 하였고, 이듬해에 계약을 다시 하여 조금 더 보강 조사를 하고 마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 무안하다. 이 현장에도 여러 곳의 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다. 경북대학교 김호일, 홍순광, 부산대학교 이주현, 경주 동국대학교 박진우, 창원대학교 최현섭, 유병일, 김문철, 경상대학교 강경희 등이다. 막 졸업하였거나 재학생이었다. 역시 지역 학교와의 형평성과 배려를 읽을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추억을 나누는 사이들이다.

차수가 다르게 이어진 연대도와 욕지도의 지표 조사와 발굴 후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 나의 전공을 신석기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서 ‘가야’를 공부할 꿈을 가지고 진주로 왔는데 가끔 관장은 나에게 신석기를 전공하라는 권유를 많이 하셨다. 그러나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선사 공부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별 관심도 없었다. 그러다가 학예연구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신석기를 한 번 공부해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다. 도통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도 되지 않고, 제대로 내용을 알 수 없는 분야였기 때문이었다. 건방지게도 너무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분야여서 내가 한 번 정리해 보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욕지도 현장을 마칠 때까지도 내가 신석기를 공부하고 싶

다는 고민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현장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잘 모르는 유적을 발굴한 꼴이고, 지금도 그 현장에 있었던 후배들에게는 창피한 현장으로 남아 있다. 그 후 보고서를 써야 하였고, 연대도의 발굴이 계속되면서 알게 모르게 나는 신석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관장님이 진주에 계실 때 전공을 바꾸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 지나고 나니 연대도와 육지도 유적의 발굴이 그동안 ‘가야’와 ‘신석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나를 신석기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때 나의 Captain은 이미 서울 고고부로 그리고 전주 관장으로 가시고 난 후였다. 조금 일찍 신석기를 공부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하였다.

더군다나 육지도 유적의 보고서는 나를 또 한 번 부끄럽게 만들었다. 좋은 석기가 많아 실측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부석층에도 잔돌이 많아 제도가 힘들었다. 밤늦게까지 보고서 준비에 몰두하여 드디어 원고와 도면을 출판소에 넘겼다. 유구는 보통 1/6, 유물은 크기에 따라 1/3 혹은 1/2로 축척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 현장에서의 유구 실측도와 실내에서의 유물 실측도는 트레이싱을 하여 편집한 도면을 각각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유구는 구조물의 위치나 효과선 등을 위해 각기 다른 펜 굵기의 도면으로 만들고, 유물도 단면이나 테두리, 효과선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펜의 굵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인쇄되어 온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하였다. 대부분의 유구 실측도는 가장 굵은 선만 나오고 가는 선은 다 지워지고 없었다. 적시된 축소비를 무시하고 모든 비율을 페이지에만 맞도록 한 것이다. 다시 인쇄하지도 못하고 출판을 하고 배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공을 들인 실측이었건만 허망하였고, 그 인쇄소를 추천하신 당신도 늘 아쉬워하셨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 인쇄소는 그 이후 다시는 국립박물관 보고서를 찍을 수 없게 되었다.

3. 서울에서

가. 해후

1997년 초 중앙박물관 고고부로 전보되어 당신과 해후하였다. 승진 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연구관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나는 불만이 가득한 터였다. 그런

데 서울로 와서 근무하라신다. 젊을 때부터 서울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의 Captain이 있었다. 전주 관장을 역임하신 후 고고부장으로 계실 때였다. 명을 어길 수 없었다. 다행히 그해 7월 1일부로 연구관 임용이 되었다. 마침 창원 다호리 발굴을 하기로 출발하는 날이었다. 그 후 고고부에 6년을 근무하면서 부장님과 함께 여주 연양리, 몽골 우그르친골, 창원 다호리, 원주 법천리, 암사동, 암사초등학교 신축지 등의 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몽골 조사는 한 번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처음 부장님과 국외 발굴을 기획할 때에는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해’ 몽골의 신석기 유적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다. 기대가 컸으나 나는 다호리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몽골의 첫 조사는 우리가 처음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구석기 유적이 되고 말았다. 몽골 측에서 좋은 유적이라고 추천한 곳이었는데, 예전 러시아에서 발굴조사한 바 있던 구석기 유적이었던 것이다. 그 후 몽골조사는 차츰 흉노의 무덤을 조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처음 부장님께 내가 드린 말씀은 국내의 발굴은 각 소속 박물관에 맡기고 중앙박물관에서는 로마나 이집트 등 세계적인 유적을 발굴하자는 것이었다. 예산이나 여러 여건상 몽골을 택하시는 데에도 지도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쨌든 이 발굴은 국립박물관의 첫 국외 조사가 되었다. 그 후 베트남에서의 조사가 국외 발굴조사의 맥을 잇게 되었다. 언젠가 로마나 이집트 등 세계적인 유적 현장에서도 국립박물관이 참여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양리와 법천리의 조사는 유적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지 못하고 단발적인 조사가 되고 말았다. 새 박물관 이전 사업의 일이 밀려 왔기 때문이다. 법천리는 4세기대의 양형청자가 나왔던 유구를 재발굴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 유적이 남한강변의 자연제방이므로 오히려 선사유적의 유존에 더 관심이 많았다. 실제 마지막 조사에서는 선사주거지가 나와 기뻐다. 윤형원, 홍진근, 장상훈, 은화수 연구사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암사동 발굴은 두 차례 있었다. 1970년대 서울대학교와 국립박물관 등의 조사 지역 근처와 암사초등학교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특히 후자는 유적이 전혀 나오지 않은 현장이었다. 하상을 확인하고픈 마음에 깊은 구덩이를 팠다. 모래층이어서 충분한 경사면을 두었다. 어렵게 하상을 확인하고 토층도를 그리기 위해 실측 준비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왔더니, 구덩이 안에 있던 포크레인이 사라지고 없었

다. 구덩이 안으로 모든 흙이 쏠려 중장비가 매몰되어 있었다. 하마터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꾸중을 많이 들었다.

조사 후 유적이 없으니 보고서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유적이 없는 것도 중요한 자료이니 보고서를 쓰자고 말씀드렸다. 암사동 유적이 하중도(河中島)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학계에서 전혀 주목하지 못하던 일이다. 깊이 판 구덩이의 토층에서 보이던 물길 흔과 고덕동 쪽으로 난 샛길이 예전의 물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암사동은 하중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직도 학계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현장 조사자들의 결론을 받아들여 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때의 모습이 선하다.

나. 아! 다호리

창원 다호리 유적의 발굴은 나에게 많은 회한을 남겼다. 세간에 잘못 알려진 부분도 더러 있다. 연구관 임용 후 첫 일이 다호리 발굴이었다. 부장님이 따로 부르셨다. 후배들이 필드가 약하니 훈련을 잘 시키라고 당부를 하셨다. 새겨들었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1997년 7월 3일 현장에 도착하였다. 내가 책임조사원이었고, 김재홍 연구사가 상주하기로 되어 있었다. 처음 며칠은 송의정 연구관도 와 있었다. 대학원생이던 안경숙, 연구원이던 김성수 씨 등을 비롯하여 부산과 각 지역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상주하였다. 기간과 일자는 다르지만 김상태 연구사, 김도현, 김수환 씨 등도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다. 몽골과의 교류 차원에서 몽골에서 온 과학 아카데미의 바야르, 국립박물관의 오치르 씨도 한참 동안 현장에서 발굴에 참여하였다. 그때만 하여도 국립 기관에서도 용역 발굴을 할 수 있을 때였다. 기간은 3개월,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실제 발굴은 6개월을 하였다. 물론 예산을 더 받은 것은 아니다. 3개월 예산으로 6개월을 발굴한 셈이다. 장마와 태풍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삼국시대 고분이 여러 기 나왔기 때문에 기간은 자꾸 늘어났다.

막 현장에 컨테이너를 옮기고부터 보름 동안이나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속절없이 날만 까먹었다. 시작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였다. 송 연구관은 결국 발굴 한 번 하지 못하고 귀청하였다. 기존의 다호리 7차 조사까지의 발굴조사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였다. 이미 첫 발굴에서 그 유명한 1호 묘가 발굴된 후 사적으로 지정되

어 있었던 유적이다. 사적을 가로지르는 좁은 지방도를 넓히는 구간에 대한 발굴이었다. 당연히 목관묘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미 조사한 다호리 목관묘 유적에 면한 구간에서는 도랑 유구 하나와 목관묘(73호) 한 기만 나왔다. 그 유적보다 남쪽에 있는 다른 능선 하나와 그 사이에 있는 곡간(谷間)이 주 발굴 대상지였다. 곡간에서는 위에서 흘러 내려온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유구 없이 나오고, 통일기의 석실묘 몇 기가 조사되었다. 남쪽 능선에서는 삼국시대 묘가 수십 기 나왔다. 봉토와 매장주체부가 많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봉토분의 주구에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쏟아지고, 중요한 제사의 흔적을 내는 구덩이들이 확인되었다. 그때까지 삼국 시대의 집 모양 토기는 여럿 알려져 있었으나 유구가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B1호 주구에서 의례를 행하면서 파쇄한 집 모양 토기 두 점이 나왔다.

기간은 자꾸 늘어나고 박물관에서는 용산박물관 부지 시굴, 몽골 발굴, 토기 특별 전 등의 일이 밀려 재촉이 심하였다. 부장님은 몽골 조사를 시작하는 협약 체결과 발굴 착수로 몽골을 다녀오시는 일부터 몸이 여럿이어도 모자라는 판이었다. 와중에 나는 현장에서 병이 났다. 일사병으로 알고 곧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추석 때 잠시 귀청하였다. 나의 몸 상태를 보시고는 ‘사람 하나 잡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복귀를 명하셨다. 그 몸으로는 현장 일이 무리라고 하셨다. 사무실에 있는 일이 더 견딜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려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다. 끝내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 일로 홍진근, 장상훈 두 연구사가 현장에 추가 투입되었다. 덕분에 현장에서 잘 버티었고, 길고 긴 발굴을 마칠 수 있었다. 그때 병원에서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일사병이 아니라 공황장애였다는 것을 몇 년 후에야 알게 되었다.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나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느 날 본부 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나온 감사라고 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의 다호리 발굴이 주 타깃이 된 이유는 뭘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어쨌든 현장 철수 후 서무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은 있었다. 감사 첫날 감사 담당자가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이 있다. 관장과 실장, 부장에게 얼마씩 주었는지만 말하면 지금 바로 감사를 마친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만 하여도 감사라는 것이 그런 식이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하라는 부장님 말씀이 있었다. 예산 서류 정리를 아직 하지 못하였다. 죄송하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에서 180일을 살고, 여러 명의 인부와 중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전체 예산이 1억 8천인데 쓰고 남은 게 얼마나 될까? 맹세코 단 1원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발굴하였고, 나는 병까지 났다. 등으로 설명하였다. 덕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를 한 후 토요일 오전에 간단한 사유서를 쓰고 마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늦게 일이 꼬였다. 나를 감사실에서 사무실로 돌려보낸 후, 현장에 상주하였던 김재홍 연구사를 불렀다. 같은 방식의 미끼를 던졌다. ‘이 현장에서 얼마를 먹었느냐?’ 김재홍 연구사는 탁자를 치면서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명예를 걸고 그런 적이 없다.’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자 저 뒷자리에 점잖게 계시던 감사관이 똑같이 탁자를 내리치면서 ‘감사원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뭐 대충 이런 식이었던 모양이다. 그 사건(?) 이후로 김재홍 연구사는 감사장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부장님의 엄명이 있었고, 나만 죽도록 고초를 겪었다. 감사는 1개월이나 계속되었고, 부장과 우리는 소위 징계로 가는 징조라는 문답서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슨 변고이고? 발굴에 관여하였던 사람 중 나만 빼고 징계 절차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서울에서 결재를 받아 현장으로 돈을 보낸 정성희 연구사, 현장에서 돈을 집행한 김재홍 연구사, 그리고 지휘 감독을 부실하게 한 부장님 등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였다. 감사관에게 읍소를 하였다. 모든 것이 현장 책임자였던 나의 잘못이니 나에게 징계를 내려라. 두 연구사는 승진할 때가 다 되었는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종료 후 5년 동안 승진이 불가능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고, 연구사 둘은 유물부로 전보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부장님은 감사 기간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오히려 내가 위로를 하였다. 발굴 열심히 하였고, 돈 때먹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몇 년 전 모 기자의 SNS에는 이 감사 때 받은 스트레스로 부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뉘앙스의 글이 한참 떠돌아다녔다. 현장 책임자로서 참 가슴 아프고 할 말이 없었다. 나의 잘못이 너무나도 컸기에 한 번도 이 일에 대해 핑계를 대거나 대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부장님은 누구보다도 정직하시고 공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 몇 가지를 기록하여 변명으로 삼는다.

돈 문제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감사 도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자. 현장에서의 발굴비는 크게 여비, 인건비, 수용비,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비는 출장비이다. 그것은 원래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해진 날짜만큼 인원수대로 먹고 자고 일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법 절약을

하였다. 각자가 모두 여관에서 자고 돈을 따로 받아서 먹고 싶은 것을 따로 먹는 것이 아니다. 계단과 현관, 방마다 흙투성이 옷과 신발로 더럽히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주는 여관이 없기도 하다. 그래서 숙소는 마을 회관을 빌려 썼다.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요소였다. 식당은 따로 정해놓으니 밥값이 좀 싸고, 집밥처럼 먹을 수도 있다. 인건비는 현장 인부임이다. 매일 출근부에 각자의 도장을 찍은 서류가 있으니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수용비는 호미와 팽이, 천막, 노트, 펜 등 자질구레한 장비를 사는 것,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증장비 사용료가 전부이다. 호미 하나 산 영수증부터 모두 노트에 날짜별로 다 붙여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당이 문제인데, 경주박물관에서 한 황성동 발굴을 계기로 용역 발굴을 할 때 수당을 받는 것도 나름 일정 금액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일부 행정직은 못마땅해하였다. 감사관들도 물론 행정직이다. 우여곡절 끝에 경주 황성동 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 만든 ‘용역 발굴에서의 수당 지급 지침’을 찾아 들이밀었다. 당연히 너희들 마음대로 이런 내규를 만들었군.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관련 업무를 하는데 수당까지 받느냐? 하였다. 감사관님도 감사를 나가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하였다. 겨우 참았다. 대신 지침의 첫 쪽, 그러니까 표지도 복사하여 보여주었다. 그 지침은 감사원에서 박물관으로 보낸 공문이었다. 그 후로는 수당을 가지고 더 꼬투리를 잡지는 않았다.

물론 감사관은 정리된 서류가 없으니 황당해하였다. 한 20여 일 감사를 하더니 최후통첩을 하였다. 숨겨놓은 비밀 장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 외 이 발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비밀 장부는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궁리 끝에 내가 현장에서 쓴 야장을 제출하였다. 매일 매일 쓴 현장 상황과 유구의 조사 내용, 내일 할 일과 앞으로 검토할 일, 일의 양에 따른 증장비와 인부의 수급, 현장을 방문한 분들과 가르침 등을 그림과 함께 깨알처럼 써놓았다. 그런데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다. 부르지도 않거니와 아예 감사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더 불안하였다. 마치 무슨 죄인을 심리적으로 옥아매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보통 이럴 때는 다른 부처에 가서 다른 일을 감사한다고 한다. 거기에서 우리와 관련된 현장에 확인 전화를 한다고 한다. 실제 어느 날 다호리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밤에 잠이 들었는데 감사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 여러 가지를 캐묻는다는 것이다. 농부들은 새벽부터 들에 나간다.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든다. 밤에 오는 전화는 자식들에게 일이 생긴 것인가 하고 농부

들을 놀라게 한다고까지 하셨다. 작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에 얼마를 받고, 발굴 현장 일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단다. 혼자에게만이 아니라 인부로 있었던 모두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혹시 나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도 되고, 당신들도 속인 것은 없지만 겁이 나서 오히려 물어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들도 화가 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얼마씩 받고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들였다. 일한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단다. 새벽에 들에 나가 일을 해 놓고, 현장 일 마치고 다시 들 일을 보았다. 왜 자꾸 이렇게 온 동네 사람에게 전화질이냐고 야단을 쳤다고 하였다.

감사의 막바지에 감사관이 나를 불렀다. 야장을 돌려주었다. 당신이 감사를 여러 번 하였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여 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1997년 8월 15일 부분을 보여주었다. 연필로 줄이 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구관장님, 여비와 수당을 수령치 않으심. 그것으로 조사단과 식사를 하라고 하심.’ 하여 나는 청주 관장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여주었다. 안승모, 이영훈 두 분이다. 말이 난 김에 우리 이런 선배들 밑에서 일하며 배웠는데, 어떻게 돈을 잘못 쓸 수 있을까? 하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분위기를 탄 김에, 감히 부장님께 강압을 넣었던 일도 이야기하였다. 부장님을 비롯하여 고고부 직원의 수당은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일이다. 수당을 다 합치면 약 500만 원이었다. 다호리 1차부터 7차까지의 진전 보고에 있는 유구 도면을 현장에 와서 맞추어 보니 오차가 좀 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당으로 지난 조사 구역과 이번 현장의 범위 전체를 아우르는 평판 측량도를 작성하는데, 지난 조사의 모든 유구의 분포도를 다 넣어 만들겠다고 하였다. 특유의 ‘이 사람!’ 하시면서도 흡족해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마침 IMF 직전이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조사원들에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었다. 감사 때 이 측량도와 영수증을 보여드렸다. 아직 현장에서 들어와 풀지도 않은 평판 측량도와 함께 그 속에는 영수증이 있었다. 이 일에 대한 원인행위는 결재를 받은 일도 없다. 감사관도 확인하였을 것이다. 예산으로 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수당으로 이런 일까지 하였다고 어필을 한 것이다. 아울러 고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전문대 학생들에게는 인부임을 계상하여 주었다. 그러나 고고학을 전공하겠다고 온 학생들에게는 수당과 인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까지 말하였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러면서 현장 일을 배운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다. 실제 인부임 서류에도 그 학생들의 취역 내용은 없다. 그 대신 현장에서 나갈 때 최소한의 수고비를 우리의 여비에서 마

련해주었다. 이것은 곧 부장의 원칙이기도 하였다. 이런 억지를 다 받아주신 분이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현장에서 기록한 야장이었던 것이다. 길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는 하였으나 나는 나대로 깊은 병세에 다시 빠졌고, 우리의 Captain은 이듬해 올 수 없는 길로 가시고 말았다.

다. 발굴조사 보고서

감사 후유증을 털고 본격적으로 다호리 보고서를 시작하였다. 가야 공부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다. 그동안 나온 가야 관련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보니 막막하였다. 내가 가야에 관심을 버린 후에 나온 최근 약 10년 동안의 글들이 그 이전 전체의 것보다 훨씬 많았다. 방침을 바꾸었다. 우선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유구, 유물을 잘 기술하고, 고찰은 그 후에 관련 서적을 참고하기로 하였다. 홍진근, 장상훈 두 학형의 도움이 컸다. 실측과 제도는 권도희 씨가 전담하였다.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밝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야토기의 제작기법과 소성 조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호는 분할 성형되었으며, 성형이 끝난 토기는 4세기의 어느 시기부터는 가마 내에 중첩하여 소성한다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기법도 여럿 알게 되었다. 유물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관련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보았다. 어디에도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놀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고고학의 큰 흐름은 형식학적인 분석에 의한 편년이 중심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은 것이다. ‘이기재(離器材)’, ‘이상재(離床材)’ 등의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보고서의 고찰 부분에 몇 꼭지의 논문이 될 만한 글을 비교적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1999년 여름 최종규 선생이 다른 일로 박물관에 오셨을 때, 이런 사실을 보여드렸다. 칭찬하셨다. 그분에게 학문적인 칭찬을 받는 일은 영광이다. 당신은 그 후 창녕 계성고분 발굴보고서에 토기의 소성과 관련된 우리의 관찰 내용을 더 심화시킨 논문을 발표하셔서, 후학들이 삼국시대 토기 소성법을 공부하는 데 큰 틀을 마련하여 주셨다. 1998년과 1999년 두 해에 주로 일들이 있었는데, 병마와 힘들게 다투시던 부장님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별관 작업실에 오셔서 새로 나온 관찰 결과를 들으시며, 우리를 독려하셨다. 심지어는 박물관회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열 분을 배치하여 주셨다. 이 과정에서 신병찬 국장의 도움이 컸다. 유물의 접합과 복원, 제도 등을 위하여 160여 명의 봉사자 중 미대 출신

과 손재주가 좋은 분들을 따로 배정하여 주셨다. 부장님의 말씀은 자원봉사자가 전시실 안내를 주로 하시는데, 그 영역을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그분들은 전시장 안에 있는 명품 유물만 보시다가 직접 유물을 만지니 감동이고, 더군다나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 대호(大壺)를 완형으로 복원하니 기쁘셨을 것이다. 복원한 대호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하셨다. 자원봉사 활동의 새 지평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부장님은 이미 다른 세계의 분이 되어 있었다.

다호리 보고서의 큰 틀이 잡혔을 때 부장님은 나에게 또 다른 업무를 주셨다. 부내에서 사소한 나의 일도 있었고, 밀레니엄 특별전의 주제였던 “쌀” 전시도 준비하여야 하는 시점이었다. 용산박물관 개관과 관련된 일도 만만치가 않았다. 용산 개관 준비팀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으나 실제 총괄 업무는 부장님이 맡고 계셨다.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소위원회 회의 자료와 기초조사는 나의 일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나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못하였다. 당신은 늘 나보다 훨씬 바쁘셨기 때문이다. 동삼동 유물을 풀고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국립박물관에서 판 바로 그 동삼동 유적이다. 신석기 논문에 상투적인 문구로 나오던 ‘그러나 동삼동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보고서를 내자는 것이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였다. 동삼동 보고서를 내가 쓸 줄이야! 오세연 연구사와 몇 년 동안 매달렸다. 나의 은사이신 김종철 선생님이 학예연구사 시보 때 현장에서 작성하신 야장을 찾고, 윤무병 선생님 댁을 드나들면서 발굴일지와 도면, 원고를 받았다. 다행히 윤 선생님 생전에 보고서를 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모두 4권으로 나온 이 보고서를 정작 당신은 전혀 보실 수가 없었다. 30년이나 지난 국립박물관의 큰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리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라. 운명

1999년 10월 중순으로 기억된다. 바쁜 생활 중에서도 우리는 매주 목요일 장충단 공원에서 테니스를 하였다. 이견무 실장님이 주축이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모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 이견상 선생님과 한 부장님, 강대규 연구관과 나, 그리고 사무국의 김상기 씨가 고정 멤버였고 또 몇 분이 더 계셨다. 마침 그 주에 나

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부장님은 출근하지 않으셨다. 전날 테니스 코트에서 한 게임을 하시고는 가슴을 움켜잡고 계셨단다. 이건설 선생님이 보시더니 ‘부장님! 복수가 찬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 보시오.’ 하셨다고 한다. 다음 날 동네 병원을 들르셨다가 바로 세브란스로 가 검사를 하신 모양이다. 그날인지 다음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고부 직원 몇 명이 병원을 찾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는데, 가족 중 우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얘기를 듣고 말았다. 간암 말기라고 하신다. 주저앉을 뻔하였다. 병실에서 내 손을 꼭 잡으시고도 일 걱정을 하셨다. 그로부터 꼭 한 달 만에 운명하셨다. 하도 급작스러운 운명이라 친하신 분도 문병 한 번 못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지나고 보니 미리 알지 못하였던 우리가 더 안타까웠다. 부장님을 뵈고 고고부 연구관 방에 들르셨던 분들이 ‘부장님 병색이다. 얼굴이 너무 검으신데 어디 아프십니까?’ 하셨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계처럼 같은 말을 하였다. ‘주말에 아파트에서 테니스를 하시면서 땀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늘 두꺼운 겨울 운동복을 허리에 감고 계셨다.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회한에 젖었다.

장례식장에서는 고고부 직원들이 교대로 조문객을 맞았다. 나와 장상훈 씨는 상주하였다.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조문객이 있다. 저 멀리서부터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들어 오시는 한 분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말 그대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우시는 분은 처음 보았다. 소리뿐만 아니라 정말 땀방 같은 눈물을 흘리셨다. 산청요 민영기 선생이었다. 함께 오신 문진수 병원장 등이 말려 겨우 진정을 시켰다. 진주 관장으로 계실 때 자주 교유하시던 분들이다. 다른 한 분은 최종규 선생이다. 원래 서울에 오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자리를 직접 찾으시는 일도 드문 분이다. 전화가 왔다. 식당 앞이라고 하셔서 나갔다. 말이 없으시다.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았을 것을.’ 눈물을 보이신다. 두 분을 다 관장으로 모셨던 내가 알기로는 두 분 사이에 특별히 악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한 분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타협할 줄 모르는 한 분이었을 뿐이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정양모 관장께서 또 다른 업명을 내리신다. 부장님은 과로에 의한 순직이니 그 일을 처리하라신다. 몇 날을

고생하여 본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하였다. A4지 70쪽이 넘는 분량이었다. 거기에다가 세브란스 담당 의사를 찾아가 ‘과로로 인한 간암’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신다. 그 일은 내가 하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 말로는 그런 사인은 쓸 수가 없다는 데도 관장은 호통만 치셨다.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순직 업무를 담당 하던 부처를 찾았다. 마침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동기이던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되든 그렇지 않든 관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느긋한 담당자는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서 저녁이나 먹자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인가? 공무원이 간암으로 사망하면 순직이란단다. 그만큼 누적되어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이란단다. 얼마나 다행스러웠던지. 그 순간 아란이와 명규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마, 추모 행사와 『韓國新石器文化研究』

3년 후 『韓國新石器文化研究』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생전 쓰신 논문을 신석기와 청동기로 나누어 1, 2부에 실고, 3부에는 다른 분야의 글과 일화를 실었다. 논문에 들어간 도면과 사진은 모두 새로 찍고 제도를 하였다. 고고부에 공익 근무하고 있던 이경우 군이 원고 입력을 도왔고, 도면의 제도 중 일부는 김무중 씨가 도왔다. 꼬박 2년이 걸렸다. 논문에 실린 흐릿한 유물은 대학에 있는 것도 있어서 일일이 찾아가 새로 사진을 찍고 실측을 하였다. 764쪽이나 되는 두꺼운 책이 되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혼이 난 일만 기억이 난다. 나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고, 부서 내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 남는 것은 선배들의 꾸중(?)뿐이었다. 안승모 선생은 일이 많았을 것인데, 좀 분담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시는 것이었다. 당신도 후배인데 일부 논문이라도 입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아 서운하다고 하셨다. 이영훈 후임 부장은 책 어디에도 고생한 내 이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 꾸중을 하셨다. 물론 출판사 사장님과 부장도 왜 나의 이름은 없느냐고 인쇄하기 전에 직접 찾아와 추가하자고도 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이 책에 들어가는 사진 한 장, 글 어디에도 나의 얼굴과 이름을 넣고 싶지 않았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그것이 내가 잘 모시지 못한 부장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였다. 지나고 나니 참 헛된 고집이었다고 생각된다.

10주기 때에는 한국신석기학회에서 특집호를 냈다. 원래 책의 표지도 흰색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이번에는 내가 서운하였다. 거기에 부장님을 그리워하는 글을 하나 실었다. 안승모 선생님이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내가 쓰게 되었다. 그 학보를 들고 부장님 묘를 찾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다시 10년이 흘렀다. 이제 나도 퇴임하였다. 가장 먼저 부장님을 찾아 퇴임신고를 하였다. 명복을 빌 뿐이다.

2019년 9월

雲門 合掌